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는 다양한 글이나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찾아보고, 글이나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이 담긴 부분입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며,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의 특징 및 실현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맥락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의 특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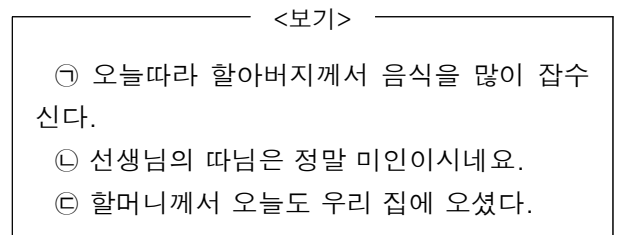
- ①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 ② 주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주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대상을, 객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 ④ 상대 높임 표현은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 ⑤ 주체 높임 표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2. <보기>의 밑줄 친 표현에 사용된 높임 표현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은 조사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 ②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 ③ ㉢은 주격 조사를 사용하여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 ④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 ⑤ @은 청자를 높이는 종결 표현이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다.

3.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보아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으로 보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다.

- ③ ㉠으로 보아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생략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으로 보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일 수 있다.
- ⑤ ㉢으로 보아 주어를 높이는 조사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높일 수 있다.

- ④ ㉠ 나에게 주오.
㉡ 많이 먹지 마.
- ⑤ ㉠ 나에게 줘라.
㉡ 저에게 줘요.

4. <보기>의 밑줄 친 대상을 ‘아버지’로 바꾼 높임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러 집으로 갔다.

- ①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
- ② 나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
- ③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주러 집으로 갔다.
- ④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간다.
- ⑤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가겠다.

5. 상대 높임 표현을 <보기>와 같이 나눈다고 할 때, ㉠과 ㉡에 포함되는 예시로 적절한 것은?

<보기>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보십시오	해요체	보아요
㉠ 하오체	보오		
하게체	보게	㉡ 해체	보아
해라체	보라		

- ① ㉠ 어서 오십시오.
㉡ 질문에 답하십시오.
- ② ㉠ 예약이 있으십니까?
㉡ 여기에 앉게.
- ③ ㉠ 멈추지 마라.
㉡ 저에게 주십시오.

6.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다희야, 배고픈데 김밥 먹으러 갈래?
좋아!

(나)

정다희 학생, 질문해 주십시오

상대 높임 표현은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청자에게 말을 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된다. 위 예시의 경우 (㉠).

- ① (가)와 (나)는 모두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냈다.
- ② (가)는 사적인 상황이므로 비격식체를, (나)는 공적인 상황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한 것이다.
- ③ (가)는 해요체를 (나)는 하오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하게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⑤ (가)는 상대를 높이고 있고, (나)는 상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7.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화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등이 있다.

- 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 오셨다.
- ② 어머니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려고 시장에 가셨다.
- ③ 나는 학부모 총회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로 갔다.
- ④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 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다치셨다.

8. 시제와 동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나뉜다.
- ② 시제는 선어말 어미, 시간 부사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한다.
- ③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 ④ 시제와 동작상 모두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 ⑤ 완료상은 ‘-고 있다’로 표현하고, 진행상은 ‘-어(아) 버리다’로 표현한다.

9. 다음 중 문장과 시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지구에는 아주 먼 옛날 공룡이 살았었다. - 현재 시제
- ② 무릎이 시큰거리더니 정말 비가 왔다. - 과거 시제

- ③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 현재 시제
- ④ 지금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며 복잡하다. - 미래 시제
- ⑤ 도서관에서 나무가 공부하고 있더라. - 미래 시제

1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예전에는 친구들도 참 많았었다.
- ㉡ 하늘이 흐리더니 비가 왔다.
- ㉢ 10분 후면 친구가 방문하겠지?
- ㉣ 저기 문 좀 닫아주겠니?

- ① ㉠은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사건시가 발화시를 앞선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두 개의 문장에서 각각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은 같은 시제이나 의미상 차이가 있다.
- ④ ㉢은 완곡의 의미를, ㉣은 추측의 의미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 드러낸다.
- ⑤ ㉢과 ㉣을 통해 같은 선어말 어미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보기>의 ㉠~㉤ 중 시제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 예전부터 ㉠보던 모습이야.
- 일에 ㉡몰두하는 너의 모습은 참 멋있다.
-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2. 다음 중 문장에서 드러나는 동작상이 다른 하나는?

- ① 나는 온종일 하늘을 보고 있다.
- ② 동생이 내 초콜릿을 다 먹어 버렸다.
- ③ 따뜻한 봄이 서서히 오고 있다.
- ④ 새 시대가 밝아 온다.
- ⑤ 나무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13.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쌓여가는 서류에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 ② 길을 가던 새싹이는 도둑에게 금반지를 뺏겼다.
- ③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두 모아 버렸다.
- ④ 차례대로 합격자의 이름이 불렸다.
- ⑤ 문이 열리며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주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객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높임 표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자,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이다.

② 높임 표현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상대 높임 표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⑤ 주체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 높임 대상의 소유물, 시간, 신체 등을 높이면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2. 정답 ④

㉠ '여쭙어보러'는 객체 높임 표현에서 사용하는 특수 어휘로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 '께서'는 주격 조사로 주어이자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② ㉢ '소개하신'은 '소개하-'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③ ㉣ '께'는 부사격 조사로 부사어이자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⑤ ㉤은 청자를 낮추는 종결 표현이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다.

3. 정답 ②

㉞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따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생님의 가족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㉟은 '잡수시다'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를 사용하여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③ ㉡은 주체인 따님을 높이는 표현이나, 주격 조사 '께서'가 생략되고 보조사가 쓰였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은 '오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할머니' 뒤에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①

<보기>에서 '친구'를 '아버지'로 바꾸려면 먼저 부사격 조사 '에게'를 '께'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주다'라는 동사도 특수 어휘인 '드리다'로 바꾸어야 하므로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가 적절하다.

② 부사격 조사를 '께'로 바꾸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특수 어휘 '드리다'로 바꾸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④, ⑤ 부사격 조사와 특수 어휘 모두 사용하였으나, 시제를 현재와 미래로 바꾸어 적절하지 않다. 문제에서는 대상만 바꾸라고 하였으므로 시제가 변해서는 안 된다.

5. 정답 ④

㉡은 하오체가 사용되었고, ㉢은 해체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예시이다.

①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고, ㉢은 하오체가 사용되었다.

②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고, ㉢은 하계체가 사용되었다.

③ ㉡은 해라체가 사용되었고,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⑤ ㉡은 해라체가 사용되었고, ㉢은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6. 정답 ②

(가)는 사적인 상황이므로 해체를 사용했다면, (나)는 공적인 상황이므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

이다.

- ① (가)는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냈으나, (나)는 격식체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는 해요체를 (나)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상대를 높이지 않았고, (나)는 상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였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인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또한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인 객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 ②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인 주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인 객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친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 ㉡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는 ㉠ 주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⑤

진행상은 ‘-고 있다’로 표현하고, 완료상은 ‘-어(아)버리다’로 표현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 ②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언어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시간 부사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표현한다.
- ③ 미래 시제는 말하는 시간인 발화시가 먼저 나타나고, 그 후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시가 나타나는 시제이다.
- ④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

고, 동작상은 진행과 완료라는 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9. [정답] ②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와 ‘-았-’이 사용되어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문장과 시제가 바르게 연결되었다.

- ①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았었-’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③ ‘이번’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할’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④ 시간 부사어 ‘지금’과 기본형 ‘복잡하다’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⑤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10. [정답] ④

㉠과 ㉡ 모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추측의 의미를 드러내며, ㉡은 완곡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시간 부사어 ‘예전’과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하늘이 흐리더니’와 ‘비가 왔다.’라는 두 문장이 쓰였으며, 선어말 어미 ‘-더-’와 ‘-았-’이 각각 쓰여 과거 시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과거 시제이다. 그러나 ㉠은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단절의 의미를, ㉡은 ‘-더-’를 사용하여 회상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 ⑤ ㉠과 ㉡은 모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으나 완곡이나, 추측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11. [정답] ③

- ㉠ ‘보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이다.
- ㉡ ‘열렸다’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이다.

그러므로 ㉠과 ㉡은 같은 시제가 사용되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 ‘물두하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이다.

㉡ ‘하겠습니다’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이다.

①, ②, ④, ⑤ 모두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②

보조 용언 ‘-어(아) 버리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나머지 ‘-고 있다’와 ‘-어(아) 오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②만 동작상이 다른 문장이다.

①, ③, ④, ⑤ 모두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13. **정답** ③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두 모아 버렸다.’는 기본형 ‘버리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은 것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아니다.

① 동사 ‘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② 동사 ‘빠앗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동사 ‘부르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⑤ 동사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